

트로피컬 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켈틱 음악의 특징 연구

이신애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음악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eltic Music Elements in Tropical House

Shin-Ae Lee

Dept. of New Media Music,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기존의 트로피컬 하우스의 정의와 다르게 접근한다. 일렉트로닉 음악 장르인 딥 하우스, 칠 아웃, 댄스 홀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이 기존의 정의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트로피컬 하우스가 일렉트로닉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양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바로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인 켈틱 음악의 요소들이다. 어떤 이유에서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와 켈틱 음악 장르의 융합이 용이했는지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트로피컬 하우스가 켈틱 음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8곡의 파퓰러 음악을 통하여 분석한다. 트로피컬 하우스의 선율, 화성, 리듬, 보컬 창법, 악기, 곡의 구조가 켈틱 음악의 요소와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요지는 켈틱 음악의 요소가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장르에서 발견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더불어 창작자들은 세계 전통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 오늘날의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pproa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efinition of Tropical House. It was derived from an electronic music genre (deep house, chill out, dance hall). However, this study explains that Tropical House contains elements of other art forms as well as electronic music. These are the elements of Ireland's traditional music (Celtic music). This study explains why the fusion of Tropical House and Celtic music was easy. And it shows that elements of Celtic music are included in Tropical House through eight popular song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elody, harmony, rhythm, singing method, instrumentation, and structure of Tropical House are intertwined with the elements of Celtic music. The key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at Celtic musical elements are found in the Tropical House genre. In addition, creators need to pay attention to various types of music, including traditional music from around the world. It is suggested that creators need to think about how to combine today's music with various other genres to create original music.

Keywords : Tropical House, Celtic Music, Electronic Music, Genre, Deconstruction, Post Modernism

본 논문은 이신애의 2017년도 상명대학교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Shin-ae Lee(Sangmyung University)

email: lsa2051@naver.com

Received June 17, 2020

Revised August 26,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배경

오늘날의 많은 팝 음악들은 다양한 일렉트로닉 장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대중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일렉트로닉 장르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보급형 신시사이저와 샘플러가 등장한 1970년대 이후, 일렉트로닉 음악은 다양한 장르가 섞이면서 발전했다.

서로 다른 장르가 융합되어 새로운 장르가 되는 현상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 현상들은 '퓨전'의 결과로 생긴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지역과 문화의 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어떤 형태든 서로 간의 충돌과 결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대중음악 장르에서는 장르와 장르가 융합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문화, 예술 분야에도 반영된 것이다.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 간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대중음악에도 다양한 사례가 형성되었다. 대중음악 영역에서는 에스노 팝과 에스닉 락이 생겨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음악 전통어법들이 서양 락 음악 및 팝 음악의 요소들 그리고 전자음향적인 기술들과 융합된다[2]. 또한 '월드비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 1세계와 제 3세계 사이의 상호 풍부화를 통해 생산된 현대적이고 댄스 지향적인 음악이다[2].

일렉트로닉 장르의 음악 역시 여러 장르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양식이 기존의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계속 첨가되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양식이 뒤섞여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3]. 즉 기존의 음악 장르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장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새로운 장르가 리스너들에게 낯익은 새로움을 준다면 그 장르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기도 한다. 최근 대중적인 장르가 된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가 그러하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팝 음악 시장에서 강세였던 장르이다. 이 시기에 Grammy Awards와 Billboard 연말 결산 차트에서 Justin Bieber, Rihanna, DJ Snake, Major Lazer, Kygo, Calvin Harris 등 영향력이 있는 뮤지션들이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곡으로 수상하였으며,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는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일렉트로닉 음악이 전자음악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고 한정하였다. 해당 장르의 제작 기법과 곡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를 비롯하여 일렉트로닉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음악 장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했다. 여러 일렉트로닉 장르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정의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에 들어있는 다른 장르의 요소를 찾았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가 딥 하우스(deep house) 장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전자 음악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일렉트로닉 음악 계열의 장르에 전혀 다른 예술 양식(art form)의 요소가 추가되었다. 바로 월드뮤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통음악인 켈틱 음악(celtic music)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곡 안에 나타난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요소를 증명하는 것이다.

1.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Table. 1과 같이 팝 음악 시장에 영향을 끼친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곡들로 한정한다. 팝 음악 시장에 영향을 끼친 곡의 선정기준은 권위 있는 시상식인 Grammy Awards, Billboard Awards에서 수상하거나 노미네이트된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곡들로 선정하였다. 또는 대중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Billboard Top 100차트, UK Single 차트에 진입 했던 곡들 중에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곡으로 선정하였다. Major Lazer의 〈Lean On〉(2015), Ed Sheeran의 〈Shape of You〉(2017), DJ SNAKE의 〈Let me Love you〉(2016), Kygo의 〈Here for You ft. Ella Henderson〉(2015), Kygo의 〈Firestone〉(2014), Justin Bieber의 〈What do you mean〉(2015), Justin Bieber의 〈Sorry〉(2015), Clean Bandit의 〈Rockabye〉(2016)의 악보 분석을 통하여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선율, 화성, 리듬, 보컬 창법, 악기, 곡의 구조가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요소와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1. The Song list of Tropical House.

	Grammy Awards	Billboard Awards	Billboard Top 100 Chart	UK Single Chart
Kygo (Firestone)	x	Top Dance/Electronic Album.2017	92	8
Major Lazer (Lean on)	x	Top Dance/Electronic Song.2017	4	2
Kygo (Here for you)	x	x	92	8
Justin Bieber (what do you mean?)	Album of the year.2017, (Nomination)	Top Billboard 200 Album.2016 (Nomination)	1	1
Justin Bieber (Sorry)	Album of the year.2017, (Nomination)	Top Streaming Song.2016 (Nomination)	1	1
Clean Bandit (Rockabye)	x	Top Dance/Electronic Song. 2018 (Nomination)	9	1
Dj Snake (Let me love you)	x	Top Dance/Electronic Song, 2017 (Nomination)	4	2
Ed Sheeran (Shape of you)	Best pop solo, 2018	Top song Sales Artist, 2018	1	1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정의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뜨거운 여름이 연상되며, 편안하게 흘러가는 듯한 음악 성향을 갖고 있다. 기존의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정의는 딥 하우스(deep house)의 서브 장르이며, 레게 음악 요소와 칠 아웃 장르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신시사이저 악기 및 4/4키 드럼 패턴을 포함한 전형적인 하우스 음악 특성이 있다. 하지만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일렉트로닉 음악이지만 템포는 105-110 BPM정도로 느린 편이며, 드럼 비트의 편치감이 약하다. 당시 페스티벌에서 유행했던 EDM 음악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와 어두운 분위기도 낼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틸 드럼, 마림바 또는 댄스홀에서 쓰는 팬플루트와 같은 악기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여 당시 EDM 음악과 대조적으로 느리면서 이국적인 리듬과 화성진행, 멜로디를 갖고 있다.

2.1.2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정의

중세시대 켈트 문화권에는 종합 예술인 바드(bard)가 있었다. 이들은 즉흥적인 시와 선율을 읊으며 노래했는데, 이 음악이 전통적인 켈틱 음악(celtic music)이다. 바드(bard)의 음악은 하프를 연주하는 특징이 있었다. 바드(bard)가 연주하던 짧은 기악곡을 엮어 만든 것을 '툰(tune)'이라고 부른다. '툰(tune)'은 보통 2부 형식(binary form)으로 대칭을 이룬다[4]. 또한 2마디 혹은 4마디의 악구(Phrase)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악구는 '질문과 응답(call&response)'의 형태를 띤다.

켈틱 음악(celtic music) 중에서 릴(reel), 혼파이프(hornpipe)는 대표적인 장르로 독특한 리듬이 있다. 릴(reel)은 빠르게 추는 춤곡으로 반복해서 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4분의 4 박자의 곡이 많은 편이며, 짝수 박에 액센트가 강하며, 노트의 음가에 변화가 적다. 8분음표가 ♩ ♩ ♩ ♩ ♩ ♩ ♩ ♩과 같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멜로디가 특징적이며, 주자에 따라 암비트 Swing을 살려 연주하기도 한다[4]. Fig. 1의 〈Ship are Sailing〉이라는 곡은 릴(Reel) 음악의 리듬 반주가 쓰이는 대표적인 곡이다. 선법 음악이 쓰였으며, 악구가 반복된다.



Fig. 1. 〈Ships are Sailing〉 Score

또 혼파이프(hornpipe)라는 장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피리의 반주 안에서 춤을 추는 곡으로, 홀수 박의 8분음표나 4분음표에 액센트가 온다[4]. 리듬은 Triplet 리듬을 많이 사용하며 Swing 느낌을 주는데 점 8분음표와 16분 음표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각색선이 끝나는 마디에서 ♩ ♩ 형태 리듬을 사용하는 강한 중지(Cadence)를 갖는다[4]. Fig. 2의 〈Boys of Bluehill〉가 대표적인 곡이다.



Fig. 2. <Boys of Bluehill> Score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선율은 보통 5음계(pentatonic scale)와 선법 음악의 음계를 주로 사용한다. 선법 음악 중에 Ionian Mode와 Aeolian Mode를 기본 바탕으로 사용하며 Dorian Mode와 Mixolydian Mode도 사용한다. 또한 5음계(pentatonic scale)을 주로 사용하면서 Aeolian Mode를 경과음(passing tone)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Aeolian Mode에서는 이끔음(leading ton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성이 약화 되면서 선법성이 나타난다[4]. 켈틱 음악(celtic music)은 선법 음악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선법 음악은 기존 코드 톤이 강조되는 음악이다[6]. Fig1, Fig2의 두 예시 곡 모두 코드톤의 멜로디가 강박과 흡수 밖에서 쓰이고 있다. 또한 코드의 근음이 멜로디에 많이 쓰이는데, 이는 화성적인 측면보다는 멜로디와 수평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음과 음 사이를 3도로 도약하며 진행하는 것과 6도로 급작스러운 상향 도약 또한 켈틱 음악(celtic music) 선율의 특징이다. 또한 곡의 마지막 음은 으뜸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전통악기들은 서로 화성을 쌓아 올리는 연주보다는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음악이 보통이다. 단선율의 멜로디를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것은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화음을 대신하는 풍부한 배음이 생긴다.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화성은 Aeolian Mode의 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도미넌트 7th 코드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3화음(Triad)을 주로 사용한다. 도미넌트 코드에서 나오는 이끔음(leading tone)은 부재하게 된다. Suspended 4th 코드, 혹은 Vm 코드를 사용하여 선법 화성의 특성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4], 보통 Cadence Chord로 마무리가 된다.

보컬 창법 중에 신노스 창법(sean-nós)은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Tomás Ó Canainn은 신노스 창법(sean nó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다소 복잡하고 장식적인 솔로 스타일과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다[7]. 신노스 창법(sean-nós) 장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높은 음정에서 노래를 부를

때 장식적인 부분이 드러난다. 장식은 텍스트를 연결하는 목적과, 문구 사이의 간격을 멜로디가 채워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각 절에서 멜로디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신노스 창법(sean-nós)의 장식 요소 중 하나이다. 코알라 시스라는 비음 소리는 한 음절을 여러 음으로 불러낼 수 있다. 일부 소리가 입을 통해 소리를 내고 코를 통해 빠져 나오면서 문구 끝에 "m", "n" 또는 "ng" 소리를 낸다. 물론 연속하지 않는 짧은 일시 중지도 사용하는데 slide 또는 glissandi로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신노스 창법(sean-nós)은 들었을 때, 밝은 느낌보다는 비통한 감정이 든다.

켈틱음악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악기는 다음과 같다. 관악기는 백파이프 (bagpipes), 켈틱 플루트(celtic flutes), 휘슬(whistles), 아코디언 (accordions), 콘서티나(concertinas) 등이 있다. 현악기는 만돌린(mandolin), 아이리시 보주키(irish bouzouki), 피들(fiddle), 켈틱 하프(celtic harp)가 있으며 막명 악기로는 보드란 드(bodhran drum)이 있다.

2.1.3 일렉트로닉 음악과 월드뮤직의 융합

서로 다른 예술 양식(art form)이 융합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을 놓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이후 '해체주의' 개념이다. 예술에서의 '해체주의'는 문화와 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 서로 다른 요소들이 무작위의 조합, 부조화 안에서의 조화 등으로 나타난다. 포스트모던 미학의 근본은 수평적인 병렬의 체제이다. 무작위로 장르와 장르가 결합하여 부담 없이 하나의 장르를 다시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3].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장르가 융합되는 것에는 '퓨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퓨전'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용해되고 융합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오늘날 음악에서의 퓨전은 서로 다른 장르들의 다양한 접목을 칭한다. 퓨전의 뒤섞임은 시대성을 띤 문화 현상이고 퓨전의 요소는 사회가 흘러가며 공유하는 유행이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늘 변하게 된다[5].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무작위의 서로 다른 장르들이 뒤섞여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 어떻게 월드 뮤직이 댄스 장르와 융합되기 용이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융합되는 장르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가 영향을 받은 딥 하우스(deep house)와 칠 아웃은 소울풀하고 재지한 느낌이지만, 신나는 분위기를 주는 편은 아니

다. 상대적으로 켈틱 음악(celtic music)은 신나고 흥을 돋게 한다. 그러나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팝 음악 씬에서 익숙한 음악 장르는 아니다. 즉 일렉트로닉 음악과 월드 뮤직은 서로 다른 성향의 음악이기에 서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 켈틱 음악(celtic music)은 기존의 일렉트로닉 음악인 딥 하우스(deep house), 칠아웃이 융합되어 더욱 댄스 지향적인 장르인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낮익은 것’이 ‘낯선 것’과의 융합이다. ‘낮익은 것’이 더 시장성을 가질 수 있겠으나 낮익은 것에 어떻게 새 인상을 만들어 내느냐[5]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프로슈머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리스너들에게 익숙한 그 어떤 것과 또 다른 어떤 것을 적당히 섞어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1] 일렉트로닉 댄스음악 그 자체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그 자체로는 식상한 장르가 되어버렸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장르의 요소를 일렉트로닉과 팝에 접목한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예처럼 ‘낮익은 것’과 ‘낯선 것’의 융합은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혼합되는 새로운 장르에는 이미지 창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는 장르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쉽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뚜렷한 이미지를 보여준 장르이다. 디제이들은 뜨거운 여름에 어울리는 페스티벌에서 음악을 틀었고,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곡은 뜨거운 여름과 트로피컬 이미지의 뮤직비디오가 함께 연출된다.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에는 그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함께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2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와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음악적 연관성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 8곡을 분석한 결과,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에서 몽환적이고 민속적인 느낌을 주는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에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다음 5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2.2.1 선율

첫 번째로 5음계(pentatonic scale)를 사용하여 멜로디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분석한

곡 가운데 Ionian, Aeolian 스케일도 사용되었으나 모든 곡들이 5음계를 사용하였다. Fig. 3의 〈Firestone〉은 B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Fig. 4에서는 〈Lean on〉이 G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ere for You〉, 〈Sorry〉, 〈Let Me Love You〉는 C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Fig.5, Fig.7, Fig.9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6에서 〈What Do You Mean〉은 F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Rockabye〉는 A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였음을 Fig.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10의 〈Shape of You〉는 C#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한 8곡 모두에서 pentatonic scale을 메인 멜로디로 사용함으로써 민속 음악적인 성향을 짙게 나타내었다.



Fig. 3. B minor pentatonic scale of 〈Firestone〉



Fig. 4. G minor pentatonic scale of 〈Lean on〉



Fig. 5. C minor pentatonic scale of 〈Here for you〉



Fig. 6. F minor pentatonic scale of 〈What do you mean〉



Fig. 7. C minor pentatonic scale of <So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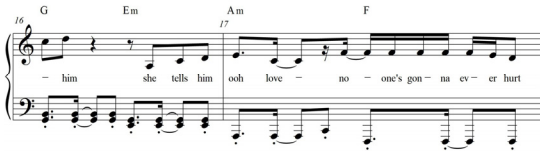


Fig. 8. A minor pentatonic scale of <Rockab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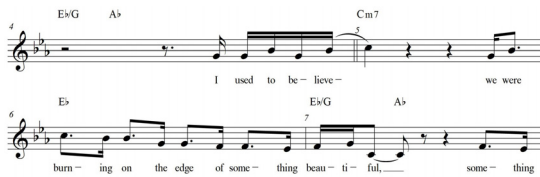


Fig. 9. C minor pentatonic scale of <Let me love you>



Fig. 10. C# minor pentatonic scale of <Shape of you>

두 번째, 반복되는 음정이 멜로디의 특징 중 하나이다. Fig. 11과 같이 <Shape of you>의 A파트에서는 메인 멜로디의 노트가 반복해서 나왔다. 또한 Fig. 12의 <Let Me Love You>의 B 파트 보컬 멜로디와 Fig. 13의 <Rockabye>의 B파트 부분도 반복되는 단선율이 돋보인다. 하지만 <Lean on>, <Here for You>, <Firestone>, <Sorry>, <What Do You Mean>는 반복되는 단선율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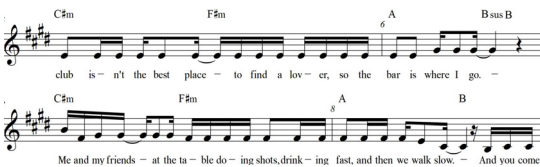


Fig. 11. A part Melody of <Shape of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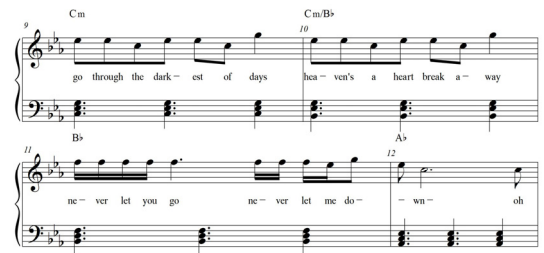


Fig. 12. B part Melody of <Let Me Lov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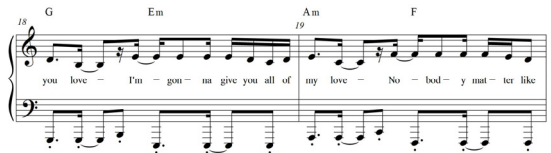


Fig. 13. B part Melody of <Rockabye>



Fig. 14. C part Melody of <Lean on>

세 번째, 단선율의 수평적 특성을 강조한다. 화성 위주의 수직적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멜로디 중심의 수평적 특성을 강조한다. 보컬과 악기가 유니즌으로 메인 멜로디를 따라가는 형태도 보인다. 보컬에서 코러스에서 오는 수직적 화려함은 적다. 하지만 유니즌으로 인해 배음이 생김으로써 민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Lean on>은 B파트를 제외한 모든 파트에서 코러스 없이 단선율만을 강조하였다. <Shape of You>, <Let me Love You>, <What Do you Mean>는 보컬 멜로디의 유니즌을 많이 사용하여, 단선율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ere for You>, <Firesone>, <Sorry>, <Rockabye>는 단선율의 수평적 특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코드, 코드의 근음과 코드 톤이 멜로디의 강박에 주로 위치한다. 이러한 단순한 멜로디의 형태는 민속 음악적인 색깔을 만들어 낸다. Fig. 14과 같이 코드톤의 멜로디가 8곡 모두 강박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Fig. 14에서 멜로디 간의 간격을 분석했을 때, 3도 간격으로 도약하거나 가끔 5도나 6도로 도약하는 멜로디의 형태를 분석할 수 있었다. <Lean on> <Shape of You>, <Here for You>, <Let Me Love You>, <Sorry> <Firesone>의 멜로디는 급격하게 도약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What Do You Mean>,

〈Sorry〉, 〈Rockabye〉는 도약하는 멜로디보다는 스케일로 흘러가는 멜로디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여섯 번째, 도미넌트 코드가 나오지 않다 보니 멜로디가 근음으로 향하기 전에 나오기 쉬운 이끔음(Leading Note)이 부재하게 된다. Fig. 15를 보면 C#m 코드로 향하기 전에 도미넌트 코드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멜로디에서 이끔음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Tonic으로 향하는 이끔음으로 인하여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의 부재로 인하여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곡은 밝은 느낌이 적다. 또한, 이로 인하여 조성 음악적인 특징보다 선법 음악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8곡 중에 〈Lean on〉, 〈Here for You〉, 〈Let me Love You〉, 〈Shape of you〉에서는 이끔음(Leading Note)의 부재가 나타난다.



Fig. 15. B part Melody of 〈Shape of you〉

일곱 번째, 마지막 음은 Tonic의 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Here for You〉에서 곡의 phrase의 마지막 음은 Tonic 음으로 끝을 낸다.

2.2.2 화성

첫 번째, 도미넌트 코드의 사용이 적으며, Table 2.에서 Natural Minor 스케일로 만들어진 코드가 중심 코드가 된다. Natural Minor 스케일은 Aeolian Mode와 같다. Justin Bieber의 〈Sorry〉만 Major Key와 도미넌트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7곡에서는 도미넌트 코드가 자체되거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Natural Minor 스케일의 코드가 주로 쓰였다.

Table 2. Tonality of 8 Tropical House Songs

Title	Tonality
Major Lazer〈Lean On〉	G Minor key
Ed Sheeran〈Shape of You〉	C# Minor key
Kygo〈Here for you ft.Ella Henderson〉	C Minor key
Kygo〈Firestone〉	B Minor key
DJ Snake〈Let me love you〉	C Minor key
Justine Bieber〈What do you mean?〉	Ab Minor key
Justine Bieber〈Sorry〉	Eb Major mey
Clean Bandit〈Rockabye〉	A Minor key

두 번째, 화성에서 조성 음악적인 특징보다 선법 음악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eolian Mode 선법을 사용하여 Mode 음악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8곡 모두 Ionian 혹은 Aeolian Mode를 사용하고 있었고, 〈Shape Of You〉만 Sus 4 코드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3화음(Triad)을 위주로 사용한다. 8곡 모두 7th 코드가 자체 되었으며, 단순한 3화음 위주의 코드를 사용하였다.

2.2.3 리듬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에서 켈틱 음악(celtic music) 중에 혼파이프(hornpipe)에서 나오는 리듬을 많이 사용한다. 2박자 혹은 4박자 계통의 리듬이 쓰이며 홀수 박에서 강하게 액센트가 온다. 약간 느리고 무거운 느낌을 주며 또한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Swing 리듬같이 느껴진다. 본래는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혼파이프(hornpipe) 리듬의 기본이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의 곡에서는 Fig. 16처럼 첫 번째의 박과 세 번째의 박에 혼파이프의 리듬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곡 중에서 Justin Bieber의 〈What Do You Mean〉을 제외하고 7곡 모두 혼파이프(hornpipe)의 리듬을 주요 리듬으로 사용하였다.



Fig. 16. Synthesizer Rhythm of 〈Shape of you〉

2.2.4 보컬 창법

Fig. 17의 가사 중에 “Do you recall” 부분은 glissando와 slide를 모방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Lean on〉은 전반적으로 신노스 창법의 느낌을 주고 있다. 〈Lean on〉뿐만 아니라 〈Firestone〉, 〈Here you go〉, 〈Rockabye〉, 〈Shape of you〉에서도 신노스 창법의 느낌이 두드러진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가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신노스 창법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한 곡 가운데 Justin Bieber가 가창한 3곡은 신노스 창법의 느낌을 찾을 수 없었다. Justin Bieber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팝 스타이며, 이미 많은 대중들은 그의 보컬 스타일을 알고 있다. 그가 피쳐링한 〈Let me Love you〉와 그의 곡인

〈Sorry〉, 〈What do you mean〉은 그의 보컬 스타일로 멜로디를 소화하였다. Justin Bieber이 가창한 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에서는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신노스 창법을 모방한 듯한 느낌을 준다.



Fig. 17. A part Melody of 〈Lean on〉

2.2.5 악기

악기 사용에 있어서 켈틱 음악(celtic music)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프, 틴 휘슬, 보드란의 악기 톤이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Lean on〉은 하프 톤의 플릭 계열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였고, 〈Shape of You〉는 아이리쉬 보드란의 톤으로 민속 음악적인 특징이 잘 드러났다. 〈Here for You〉는 플릭 계열의 신디사이저와 셰이커가 반복되었다. 〈Let Me Love You〉는 틴 휘슬을 연상시키는 리드 계열의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였다. 〈Sorry〉와 〈What Do You Mean〉은 하프 톤의 플릭 계열 신디사이저를 사용함으로써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특징을 더 살렸다. 〈Firestone〉과 〈Rockabye〉의 경우 켈틱 음악(celtic music)에서 사용하는 악기의 음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2.2.6 곡의 형식

Fig. 18의 음악을 들어보면 보컬이 ‘fire a gun’을 부르고 바로 끊는 게 아니라, ‘gun’의 릴리즈를 길게 준다. 릴리즈 여음이 계속 나오는데 ‘we all need’가 다음 가사로 나온다. 질문과 응답의 형태인데, 2마디나 1마디를 주고받는 형태로 대칭을 이룬다. 이러한 짧은 곡으로 이루어진 기악곡을 ‘툰(tune)’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악구는 세계 민속 음악(folk Music)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질문과 응답(call&response)의 형태를 띤다.



Fig. 18. B part Melody of 〈Lean on〉

3. 결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팝 음악 중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장르의 곡 8곡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이 안에서 교집합을 지니는 켈틱 음악(celtic music)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곡의 선율 부분에 있어서 7가지의 켈틱 음악(celtic music)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8곡 모두 5음계(pentatonic scale)를 멜로디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음정을 반복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세 번째는 화성 위주의 수직적 특성을 강조하기보다 유니즌을 사용하거나 멜로디 더블링을 사용하였다. 멜로디 중심의 수평적 특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는 코드톤이나 근음이 멜로디의 강박에 위치하고, 다섯 번째는 멜로디의 마지막 음이 근음으로 끝나는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다. 여섯 번째는 3도 간격으로 도약하거나 가끔 5도나 6도로 도약하는 멜로디의 형태도 분석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이끔음(leading tone)의 부재로 조성 음악적인 특징보다 선법 음악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다음 화적 측면에 있어서, Aeolian Mode 선법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도미넌트 코드가 자체 되거나 사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7th코드보다 3화음 위주의 코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듬의 특징은 켈틱 음악(celtic music) 중에 혼파이프(hornpipe)의 리듬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보컬 창법의 특징으로 켈틱음악의 신노스 창법을 모방한 듯한 Glissando, Slide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악기 사용에 있어서는 켈틱 음악(celtic music)에서 사용하는 하프, 틴휘슬, 보드란의 악기톤을 신시사이저로 모방하여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 곡에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곡의 형식은 질문과 응답(call&response)의 형태의 구조를 빈번히 사용하였다. 2마디나 1마디를 주고받는 형태로 대칭을 이루는 켈틱의 톰(tune)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느낌과 민속 음악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위와 같이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안에서 켈틱 음악(celtic music)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날 대중음악 장르는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보적이고 실험적이며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에 서슴없다. 하나의 곡 안에서 3가지 이상의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장르 자체도 여러 장르에 영향을 받았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단지 일렉

트로닉 장르에서 파생된 음악 장르에만 그치지 않았다. 대중음악 시장에서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팝 음악의 많은 작곡가 및 프로듀서들은 일렉트로닉과 댄스 음악에만 국한하여 관심을 갖는 것보다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는 최신 장르이지만 레게 음악과 아일랜드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음악 시장의 경향과 흐름은 다양한 방식에서 과거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각을 위해서 많은 음악가가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 전통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을 어떻게 오늘날의 음악에 접목할지에 대해 고민한다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기존의 일렉트로닉 음악과 켈틱 음악(celtic music)이 융합되어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가 된 것처럼 더 다양하고 독창적인 음악이 창작되길 기대해본다.

이 신 애(Shin-ae Lee)

[정회원]



• 2017년 8월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관심분야〉

실용음악, 월드뮤직 및 음악사

References

- [1] Hong Seung Chan, "The meaning of 'fusion' in the era of 'fusion'", *Nangman Quarterly*, Vol.48, Seoul, Korea, pp.213, 215, Oct. 2000.
<http://www.riss.kr/link?id=A75060151>
- [2] Byeon Gye-won, Cho Hyo-im, "Conceptual consideration of The World Music Terms", *Music And ethnic*, Seoul, Korea, pp.335, 20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20656>
- [3] Kim Yuri, "Post Modernism's Crossover Music Tren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pp.19, 11, 2001.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DIK00008937245>
- [4] Park Ki-chul,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eltic music seen through <THE Foggy Dew>",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pp.1-3.
<http://www.riss.kr/link?id=T11991983>
- [5] Lee Hye-joo, Kim Kye-yeon, "A study of fusion culture in the living environment". *Chung-Ang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5, Seoul, Korea, pp174, 167, 2002 <http://www.riss.kr/link?id=A3069700>
- [6] Steve Rochinski, *Harmony4*, Berklee College of Music p.84, 1995
- [7] Tomas ÓCanainn, *Traditional Music in Irelan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 49, 71. 1978